

## 이 달의 과 소개

# 기술표준원의 핵심! 지식산업표준국을 소개합니다



유성수  
지식산업표준국장  
02-509-7205

반갑습니다.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 유성수입니다. 이번에 '기술표준' 4월호 지면을 통해 지식산업표준국을 소개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행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5월말부터 표준국 6개과의 62명과 함께 가족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모범이 되는 규격으로서 기술과 산업 발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표준화된 기술은 훨씬 쉽게 널리 활용되고,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된 기술은 산업화·상용화가 잘 됩니다. 특히,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면 시장 선점과 함께 기술료가 발생되므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집니다. 금상첨화(錦上添花)지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자기나라 기술을 국제표준화하여 시장 창출과 선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혁신, 제품안전, 인증, 계량업무 등에도 표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 ISO9000(품질경영)을 기초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TV, 냉장고 등 가정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제품들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험분식한 결과를 IFCEE(전기제품인증)를 통해 40여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표준은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제품과 산업에 적용되었습디다만, 지금은 표준이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 안전, 범죄예방, 윤리경영 분야에 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과 경제를 선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안전, 윤리경영이 사회와 문화를 선도합니다.

표준국의 구성원들은 선진 한국과 지속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400건 정도의 표준을 담당하는데,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표준을 관리하자니, 5년마다 표준을 검토한다는 기준은 부의미합니다. 수시로 관련된 기술·산업·경제동향을 파악하고, ISO/IEC 등 국제표준의 제 개정 내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슈 쉘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국은 표준을 활용하여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중심 표준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스탠더드 코리아의 기반을 조성한

다는 비전과 목표 아래,

- 표준계획과는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스탠더드 추진, 산업표준 선진화, 민간 표준개발체제 구축, 해외 민간표준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고
- 디지털전자표준과는 동물 RFID, 차량 블랙박스, 전력 IT, 고효율 전기기기,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 바이오환경표준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물질흐름원가회계 표준화 및 KS에 환경성 도입,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시스템(N-CER) 운영과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환경분야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 에너지물류표준과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가스용품, 자동차, 조선 등 표준화와 물류, 에너지 절약 관련 인증을 담당하고
- 소재나노표준과는 수도용품, 천, 비천, 신소재, 나노, 용접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며
- 문화서비스표준과는 서비스관련 표준 및 인증과 생활용품, 픽토그램, 사회안전, 범죄예방, 사회적 책임 등 표준화와 인체치수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제, 지식산업표준국 각 과를 소개합니다.

지식산업표준국의 주부과인 표준계획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개성과 실력으로 똘똘 뭉친, 기술표준원의 썬크뱅크(Think Tank)인 표준계획과는 국가표준이 나아 갈 방향을 계획하고, 순탄한 향해를 위하여 관련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식산업표준국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립하자면 각계의 표준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산업규격을 심의하는 산업표준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표준화사업 지원 및 우수인증단체의 관리와 기술표준원의 표준화 관련 예산집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표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민간의 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표준개발협력

기관(COSID)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그린 스탠더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영미 사무관, 임현희 시험사, 신일섭 과장, 유성수 국장, 남미현 주무관,곽효연 시험사, 김은국 행정인턴, 박현영 연구사, 이종현 연구관, 김준호 연구사, 이해주 실무관, 이재만 연구관)

11명이 함께하는 표준계획과의 신봉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 표준맨 신일섭 과장님, 탁월한 리더십으로 매사에 민첩없는 업무추진이 돋보이시는 과장님은 산적한 현안에 전력을 기울이시면서도 기술표준원 신악회를 이끄시는 열혈과장님이십니다.

주무연구관으로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스탠더드 사업의 견인차 이새만 연구관님, 부드러운 미소 속에 예리한 판단력을 감추고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해결사이시며,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의 거장, 이종현 연구관님은 화려한 언변으로 과의 분위기를 주도하시며 꼼꼼한 일처리와 뛰어난 균형감각의 소유자로 파내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의 핵심 브레인 한영미 사무관님,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완벽주의자이시자 파내의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하여 처리해 주시는 의리과 만언니로 직원들의 큰 신망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과 업무 전반에 걸쳐 활약하고 계시는 박현

영 연구사님, 정확한 판단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소유자 김준호 연구사님, 오랜 공백 기간 끝에 환한 미소로 컴백한 남미현 주무관, 낯은 일도 묵묵히 해내는 과원의 영원한 조력자 이해주 실무관, 과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환기시켜주는 인턴회 시험사, 국장실을 책임지고 있는 손재주꾼 박효연 시험사, 마지막으로 땅 끝 마을에서 표준정복을 목표로 승진한 새내기 김은국 행정인턴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지식기반표준과에서 '표준계획과'로 새로운 닳을 올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정열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표준계획과는 끝없는 노력으로 국가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디지털전자표준과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전자표준과는 전기전자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를 바탕으로 국가산업 발전의 주춧돌인 표준인프라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 표준 보급과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세계시장 선진을 위한 표준정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5000여종(80%)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분야 약 4000여개의 KS 국가표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LED, 자동차블랙박스, 동물RFID 등 신 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보다 빠른 시장 선진과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서 시장의 폭발적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가전기기, 디지털도어락 등 생활 밀접형 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선 등 세계 1등 산업의 표준화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기장해, PCB, 전선 등 산업기반 시설 지원 표준화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윤이 전문위원, 김경순 시험사, 이상근 연구관, 김상구 연구관, 송양회 과장, 조남수 사무관, 구정래 전문위원, 이명수 연구사, 박기섭 행정인턴사원, 김상용 실무관, 김명근 연구사, 김현태 연구관, 정구열 연구원)

항상 주말도 없이 열정적이며, 자리에서보다 현장에서 뛰시는 송양회 과장님, 과의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이신 김상구 연구관님,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일품이신 조남수 사무관님, 국제표준화 업무의 중요 핵심이면서 각종 연구과제의 달인 이상근 연구관님, 사람 좋고 매사 여유가 있으신 김현태 연구관님, 표준개발 및 각종 힘든 민원의 해결사이시면서 매사 최선을 다하시는 이명수 연구사님,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이시지만 업무에는 철저한 분석 능력을 보여주시는 김종오 연구사님, 업무에 있어서 결코 후덕하지 않은 김명근 연구사님, 세물관리 등 각종 과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인자하신 김상용 실무관님, 언제나 소녀같은 맑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구정래 전문위원님, 언제나 소리 없이 묵묵히 업무를 책임감있게 처리해 주시는 강윤이 전문위원님, 항상 밝아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시는 김경순 시험사님, 수고스러움을 따다하지 않고 각종 힘든일을 처리해 주시는 정구열 연구원님, 새롭게 표준 행정업무에 적응하고 계시는 박기섭 인턴사원님 등 총 14명이 모두 우리과의 마스코트이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의 축들입니다.

디지털전자표준과 14명 직원들은 지금도 현안

과제 처리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국가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고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저희 바이오환경표준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십시오.

저희 바이오환경표준과는 바이오이용 산업제품 표준화, 치과, 외과용 이식재 등 의료기기 표준화, 식품 및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표준화, 수질, 대기, 토양, 상하수도서비스 등 환경관련 및 환경친화제품 관련기술 표준화, 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표준화 등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주영 연구관, 운영상 연구사, 신필수 연구관, 박순덕 사무관, 백영봉 연구사, 김영표 과장, 임윤택 연구관, 유민정 행정인턴, 김은영 전문위원, 신소영 실무관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드립니다. 항상 많은 미소와 더불어 부드러운 분위기로 직원들을 이끌어 주시는 김영표 과장님, 해박한 역사지식으로 과원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역사 강의(?)를 해주시는 박순덕 사무관, 자타가 공인하는 식품분야 표준의 우리 워 대가 임윤택 연구관, 과원들에게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쑥

을 잘해주는 의료기기 및 치과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송주영 연구관, 언제나 재치있는 유미감 각으로 직원들을 웃겨주시며 과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신필수 연구관과 조용히 맡은 일을 묵묵히 하시며, 과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시는 백영봉 연구사 그리고 지금은 몸이 아프셔서 잠시 저희 곁에서 떨어져 계시지만 항상 과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웃음을 주시는 김현용 주부관 그리고 토양의질, 수질,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를 담당하는 운영상 연구사, 항상 친절함 미소와 넉넉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신소영 실무관, 우리 과의 국제표준 업무를 혼자 도맡아서 처리하는 김은영 전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퇴근시마다 항상 직원들에게 일일이 찾아와 밝은 인사로 직원들의 애정(?)을 한 톨에 받고 있는 유민정 행정인턴이 바이오환경표준과의 멋진 인재들입니다.

항상 바이오환경표준과 직원들은 국민건강과 민접하며, 21세기 신 성장 동력인 바이오환경분야의 표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의 새벽 아침을 제일 먼저 밝히는 근년, 성실, 최고~ 너 이상 칭찬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 에너지물류표준과를 소개합니다.

에너지물류표준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핵심인 태양광, 풍력, 지열의 신재생에너지 표준부터, 원자력, 수력, 화력의 발전설비 표준, 굴러다니고 날아다니고 떠다니는 모든 표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을 포함하여, 국가산업의 동맥 물류 표준 및 가스산업, 냉동공조산업의 표준까지 에너지원에서 발전, 수송으로 에너지 제품까지 대한민국 핵심산업의 표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물류표준과에는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출선수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과원들을 이끄시는 마른생할 사나이 법회권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만 있어도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과장님은 겸소하

시고 격식을 차리지 않으시지만, 가끔씩 유머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기술표준원 최고의 빛쟁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과장님이 소개하는 에너지물류표준과 직원들을 공개합니다.

항공 표준을 책임지며 과원들의 큰형님으로 이완규 사무관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표준의 대부이며 우리과 경제자문관 신성호 연구관, 자전거로 출근하며, 물류의 길만을 달리겠다는 우리과 법률자문관 한상훤 사무관, 올해부터 에너지물류 드림팀에 합류하여 가스사고를 표준으로 잠재우는 친근한 아저씨 김학영 연구관의 막강 파워라인이 있습니다.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성호 연구관, 이완규 사무관, 김경아 전문위원, 범희관 과장, 조창애 연구사, 이희경 실무관, 진신영 시험사, 조주원 행정인턴, 김학영 연구관, 김창용 연구사, 이경희 연구사, 한상훤 사무관)

냉천판단, 누리정연함으로 묵묵부답 자동차산업에 이제야 표준의 꽃을 피우게 한 이경희 연구사, 식유, 연료전지 표준을 담당하며 기술표준원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조창애 연구사, 조선해양 표준을 책임지는 총각 같은 유부남 김창용 연구사가 있습니다.

홍보에서 우리과 사무를 담당하는, 비모로써 여직원 회장으로 선임된 이희경 실무관을 비롯하여, 일어에 영어까지 국제표준업무는 분제없이 해결해주는 김경아 전문위원, 회의준비에서 무엇이든 다 처리해주는 진신영 사무원, 그리고

새로이 합류한 '동안' 꽃미남 조주원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로!  
에너지물류표준과는 각 분야 표준 최고 전문가로 우리나라 에너지물류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활발히, 거침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은 소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소재나노표준과를 소개합니다.

소재나노표준과는 천장, 비천, 기계요소부품(용접, 밸브 및 관이음쇠, 기어, 볼트·너트) 및 노균 등의 기반산업과 나노기술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천장, 비천 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의 골격을 이루는 역할을, 용접과 볼트·너트로선 뼈대가 견고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밸브·관이음쇠로는 산업간의 원활한 흐름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기어류로는 관련 산업이 잘 연계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산업들을 잘 감싸주는 역할은 노균이 담당하고 나노스케일로 모든 부족한 면을 꼭꼭 채우고 보완·발전해 나갈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환상의 조화가 이루어진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용필 연구사, 신재혁 연구관, 윤종식 연구사, 김경립 주사보, 이종섭 연구관, 원종두 실무관, 오경희 연구관, 류경임 과장, 육근성 연구관, 이상은 전문위원)

소재나노표준과에는 한미 FTA 협상시 기술규제 분야 분과장으로서 여중당당한 기세를 마음껏 보여줌으로써 온 국민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시고 기술표준원 살아있는 신화를 만드신 류경임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기술규제대응과를 떠나 소재나노표준과로 전격 스카우트 되셔서 기술표준원 최고의 과로 키우시기 위해 다시 한번 월드컵의 신화를 이루어낸 허딩크 감독처럼 멋진 리더쉽과 따스한 카리스마로 성공으로 가는 과정 뿐 아니라 결과로서도 보여주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류딩크" 신화 다시 한번 기대해 보세요..

멋진 과장님 휘하에 있는 최고의 과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 여성 3인방 중 한 분인 육근성 연구관님은 과장님 못지 않은 "엄정난 내공"을 가지고 나노분야의 막강한 1인자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육연구관님도 우리 과로 특별 스카우트 되신것은 잘 아시죠? 여기에 3인방의 막내이신 오경희 연구관님은 나노분야 표준화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시며 나노튜브와 나노안전성 분야에서는 가히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타가 인정하시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에서 엄정난 추진력이 나오시는지 우리원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겁니다.

막강 여성 3인방과 맞먹는 남성 5인방도 있습니다. 기술표준원 전산망의 구축을 최초로 담당하셨던 터줏대감인 이종섭 연구관님도 이제는 소재나노표준과 과원간의 끈끈한 동료애와 팀 네트워크 구축 위해 스카우트 되셔서 융접분야 국제·국내 기업 및 전문가간의 탄탄한 정보망을 통해 융접분야 표준 전문가로 급부상 중입니다. 또한 나노분야 표준화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는 철강산업 분야 표준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철강분야 표준화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신재혁 연구관님은 세계 최초로 고철 분야 KS 인증을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길이 기억될 실적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유능한 연구관들보다 더 큰 저력의 소유자이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철강 전문가인 "철의 싸나이" 김용필 연구사님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정과 직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따스한 배려를 늘 잊지 않습니다. 현재 제강사 대기업 임원이신 분도 우리 "용팔이" 형님 앞에서는 철강분야 전문기술에 관한 한 중고등학생 수준일 겁니다. 우리과 막내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막내 노릇을 하는 윤종식 연구사는 과 내에서는 굶은일, 힘든일 만나않고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는 밋진 방장이자 과직원들의 활력소 공급을 위해 항상 웃음을 주는 귀염둥이 이지만 밸브 및 관이음쇠 분야 예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업계나 연구소에 계신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분들도 윤종식 연구사님의 날카롭고 서릿발 같은 질문에는 가히 당해내지 못하고 두 손 두발 다 뻗게 되는 것으로 보면 가슴 밑바닥부터 푸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과 남성 5인방 막내인 김경림 주부관님은 막내답지 않은 포스로 선배들을 당황하게 하기로 하지만 도금 분야 전문가로서 차근차근 저력을 쌓아가는 우리과 철학자입니다. 고민있으신 분께는 음료수 한병이면 고민을 해결드리는 부들과 도사랍니다.

우리과 사무를 담당하며 과직원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우리원의 마당발 원종두 실무관님이 없다면 우리과 직원의 엄정난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울 것이고 소재나노표준과호에 늦게 승진하였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따옴으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은 예쁜이 이상은 전문위원 그리고 얼마전 새롭게 한배를 타서 힘차게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노젓기를 배우고 있는 "건설남" 박재욱 인턴사원도 우리과의 자랑입니다.

소재나노표준과는 우리나라의 기반산업과 첨단산업의 공존이라는 불협화음을 이상적인 융합을 통해 완벽한 조화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표준을 세계 최고의 표준으로 하지”는 구호하에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천세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최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원하십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서비스표준과는 화합과 단결로 서비스표준과 더불어 생활전반에 걸친 표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서비스표준과의 주요 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서비스·저출산 및 고령친화 산업표준화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사이즈코리아 및 인체정보실 운영 등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및 관련 표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규격(KS)업무(방송영상물·공연·영화·유반·미디어물·게임물·사진 등의 관련 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등의 관련 산업, 문화재 관련 산업 등), 섬유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양희성사무관, 문찬영 연구사, 이봉락 과장, 최미애 연구관, 최근영 연구사, 남재원 실무관, 광혜란 전문위원, 김민정 행정인턴, 박동현 연구사)

위기, 숨어있는 인재들이 있는 문화서비스표준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과 업무를 진두지휘하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유미감각으로 직원들의 엔돌핀을 끌어내시는 거장 이봉락 과장님을 중심으로, 주부이며 품진경영, 프로젝트경영 등을 담당하는 양희승 사무관님, 사회적 책임, 문화, 범죄예방환경을 표준화 하기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일류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박정우 연구관님, 우리과로 발령 된지 한 달 남짓 된 새내기 최미애 연구관님은 그림기호, 서비스인증,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또한, 급부상 중인 우리과의 울트라 에너지이며, 섬유의 표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F4도 부러워할 우리과의 꽃미남 최근영 연구사님, 유학휴직 후 호주에서 영어의 달인이 되어 돌아온 숨어있는 큰 인재 문찬영 연구사님, 남다른 유미감각과 기술표준원 최고의 신랑감, 숨은 큰 일꾼 박동현 연구사님, 예쁜 피부와 미모를 겸비한 우리과의 살림을 알뜰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남새원 실무관님, 국제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보이시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광혜란 전문위원님,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문화서비스표준과의 막강 우수 막내 인턴 김민정 등 기술표준원의 숨어 있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문화서비스표준과의 직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서비스 표준을 위해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문화서비스표준과입니다.

| 기술표준 2009.5

기술표준원에서 최고의 팀워크와, 가족적인 분